

■ 2026 새해설계 명현관 해남군수

“인공지능·에너지 수도, 대한민국 중심에 서겠다”

AI컴퓨팅센터·해상풍력 전용항만·RE100산단 등 추진
전담부서 신설 미래사업 추진…에너지 소득 시대 준비

해남군이 미래농어업과 AI·에너지·첨단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도시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을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명현관 군수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해남은 이제 땅끝이 아닌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 심장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며 “주마가면(走馬加鞭)의 자세로 농어업 기반 위에 AI와 에너지가 결합된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을 현실로 만드는 역사적인 한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진입과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해남이 맡은 국가적 사명을 다하고, 그 성과와 경제적 혜택을 모든 군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해남군에서는 삼성 SDS컨소시엄의 국가AI컴퓨팅센터와 LS그룹에서 투자하는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조성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오픈AI·SK그룹의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조성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 군수는 “전국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정부의 AI·에너지 대전환 구상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은 해남이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AI·에너지와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에너지 수도 조성의 혜택을 해남군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8년 국가AI컴퓨팅센터 가동에 맞춰 해남읍에서 마산~산간 4차선 1단계 확보장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2단계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해남읍에서 솔라시도까지 이동시간이 18분, 전용도로가 개설되면 12분대로 단축된다.

해남읍권의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의 개선도 동시에 진행해 해남에서 살고, 해남에서 일하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해남의 풍부한에너지를 주민 수익으로 되돌리는 에너지 이익공유제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산이·마산 햇빛공유집적화단지와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의 민관협의회가 출범해 주민참여형 에너지이익공유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주식회사 설립과 펀드 조성에 착수한다.

형 스마트팜과 기업의 R&D시설들을 유치해 연구와 실증, 기술보급,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전국 최고의 미래농업 플랫폼을 조성한다.

또 발행 7년만에 8200억원 판매를 돌파하며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을 필두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읍·면 단위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한다.

명현관 군수는 “올해는 도전과 도약, 활력의 상징인 붉은 말의 해로, 대도약을 예고하고 있는 해남군의 기상과도 꼭 닮아 있다”며 “미래농어업과 AI·에너지·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농어촌 수도 해남의 비전이 반드시 실현되고, 군민 전체의 혜택으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h8239@gwangnam.co.kr

영암, 지방세 징수 1000억 시대 열었다

지난해 1058억 기록…기업 맞춤형 지원 군세 상승

영암군은 지난해 지방세 1058억원을 거둬들이며 군 역사상 최초 1000억 지방세 징수 시대를 열었다.

이는 전년 대비 6.83% 증가한 금액으로 도세 299억원, 군세 758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10년 이내 가장 세수가 적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378억원 35.71%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지방세 1000억 돌파를 이끈 주역인 군세 증가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이 견인했다.

자·정착금·복지센터 운영 등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기업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법인 영업이익 증대, 신규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영암군의 정책이 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징수액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정기·특별 세무조사, 과정주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으로 20억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이월체납 정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21억원을 환수하는 등 이월체납액 징수율 48.2% 달성 성과도 올렸다.

특히 조선업 중심의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해 총 500억원 규모로 조선해양구조물 관리플랫폼 구축,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규제자유특구 실증, 근로자 복

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월 20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신안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담당 공무원이 경로당 등 다중시설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신안=이홍기 기자



무안군은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첫 정례조회를 열고, ‘대전환 무안시대’의 개막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무안, 병오년 새해 ‘대전환 무안시대’ 시동

‘군민중심행정·미래전략’ 올해 첫 정례조회 개최

무안군이 2026년을 지역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중심행정을 핵심축으로 한 미래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첫 정례조회를 열고, ‘대전환 무안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김진 군수는 “2026년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무안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의 해다”고 강조했다. 또 군정 목표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후속 협의를 논의하고, RE100 기반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신재생에너

지 생산시설 확충으로 무안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 AI 기반 첨단 농산업 거점 육성, 인구 20만 도농복합 자립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신안,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신안군은 오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예정 대상자

는 3만9816명이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최소 3개월 실거주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2월 중순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증-139779